

고규홍의 ‘나무생각’



삶은 죽음을 품는 힘

지난해 가을의 늦은 때풍으로 미뤄야 했던 야쿠시마 답사를 다녀왔다. 살아 있는 신화인 조몬삼나무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조몬삼나무는 일본인들이 신화 속의 나무로 소중히 여기는 나무다. 나무가 서 있는 곳은 일본 남단의 작은 섬, 야쿠시마. 섬 전체의 30퍼센트 가까이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아름다운 섬이다.

조몬삼나무는 비가 많고 따뜻한 지역에서 잘 자라는 일본 특산종 삼나무인데, 선사시대의 연호인 조몬시대 때부터 살아 있던 나무라 해서 그렇게 부른다. 삼나무는 우리나라에서도 1900년대부터 제주도를 비롯한 남부의 해안 지방에서 심어 키우는 늘푸른나무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삼나무 가운데 가장 오래된 나무는 바로 야쿠시마의 조몬삼나무다. 일본인들은 조몬삼나무의 수령을 무려 칠천이백 년이라고 한다.

대괄절 그토록 오래된 나무의 나이는 어떻게 측정할까? 나무의 나이를 아는 정확한 방법은 무엇보다 나이테를 헤아리는 것이다. 하지만 살아 있는 나무를 베어 내지 않고도 나이테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을까? 성장추라는 기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긴 하다. 성장추는 가운데가 텅 빈 대롱 모양의 드릴이다. 성장추를 나무줄

기 중심부에 뚫었다가 뽑아내면 텅 빈 대롱 안쪽에 나이테 조직이 채워지고 그 조직에서 나이테를 헤아릴 수 있다.

그러나 나이테 조직이 온전히 남아 있지 않나 문제다. 나무줄기는 바깥 부분의 변재와 안쪽 즉 나이테가 남아있는 심재로 나누는데, 심재는 이미 죽은 조직으로 이루어졌다. 죽은 조직은 곧 썩기 쉬운 조직이다. 그래서 오래된 나무들은 심재의 안쪽, 즉 나이테의 맨 안쪽부터 서서히 썩어 사라지기 십상이다.

결국 성장추를 이용해 나이테 조직을 채취할 수가 있지만, 이미 사라진 나이테가 적지 않기 때문에 오래된 나무의 나이는 헤아릴 수 없다는 이야기다. 대개의 경우 삼백 년쯤 넘은 나무에서는 흔히 나타나 는 현상이다. 결국 삼백 년 이상 된 나무의 나이는 정확히 헤아릴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렇다면 조몬삼나무의 수령을 칠천이백 년으로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 과학적 근거는 없다. 조몬시대에 이 나무가 살아 있었는지를 증거할 자료는 아무것도 없다.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오는 이야기일 뿐이다. 다만 최근 조몬삼나무를 과학적으로 조사한 바 있다. 이때 과학자들의 검증에 의하면 나무의 나이테가 약

2200년까지는 확인됐다고 한다.

조몬삼나무도 오래된 여느 나무와 마찬가지로 나이테 안쪽은 오래전에 썩어 들었기에 더 이상의 과학적 추정은 어렵다면서 조몬삼나무의 나이를 ‘적어도 2200년은 넘었다’로 발표했던 것이다. 하지만 아직 일본인들은 조몬삼나무의 수령을 7200년이라고 강조한다. 하긴 조몬삼나무의 수령이 7200년이 안 된다는 과학적 근거도 없는 게 사실이다. 어쨌든 나무의 나이는 알 수 없다.

조몬삼나무라는 거대한 생명체는 제 중심으로 죽음을 품고 살아온 것이다. 이전 년이든 칠천 년이든 나무는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제 안에 죽음을 품고 살았다. 이미 사라진 나이테는 물론이고, 선명하게 남아 있을 나이테 역시 죽음을 흔적이다. 바깥쪽으로 끊임없이 새 생명을 띄우면서, 안으로는 죽음을 쌓아 온 것이다. 현대 과학으로는 나무 안에 담긴 죽음이 얼마나 측정할 수 없다.

삶과 죽음의 관계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줄기 위에 돌아난 새 가지와 이파리는 여느 젊은 나무 못잡게 싱그러웠지만, 울퉁불퉁한 그의 굵은 줄기는 삶과 죽음이 하나로 어우러진 변증의 생명이라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싱그러운 젊음과

험상곶은 늙음이 동시에 느껴지는 아찔한 표정이었다. 그 아찔함은 살아 있는 그의 줄기 안쪽에 쌓아 둔 죽음이 곱뭉거리는 흔적 때문이라는 생각이 잇따라 들었다. 제 몸 안의 죽음을 넉넉히 품지 못했다면 나무는 진작에 텅 빈 줄기만 남아 쓰러졌을지 모른다.

산다는 건 어쩌면 죽음을 품어 안는 힘이 아닐까 싶다. 어쩌면 나무뿐 아니라 살아 있는 모든 생명이 그러할 것이다. 생명은 생로병사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도 바로 삶은 죽음을 품고 산다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 제 몸 안에 죽음을 품지 못하고, 죽음이 바깥으로 내뿜어 버려지는 순간, 생명은 스러지는 법이다.

하나의 생명체만 그런 건 아니다. 온갖 생명들이 모여 이뤄 가는 세상살이 역시 죽음을 어떻게 품느냐에 따라 건강성이 결정된다. 평화와 전쟁의 변증 논리를 짚어보게 하는 이즈음 더 건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대의 흐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죽음의 세력을 품어 안는 법을 곰곰 궁리해야 할 때 아닌가 싶다.

〈나무 칼럼니스트〉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社說

38년 만에 5·18 영상물 세상에 처음 나왔다

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의 현장을 생생하게 기록한 영상물이 드문 것은 계엄군에 의한 엄격한 통제가 이뤄진 데다 촬영 장비도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가운데 38년 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5·18 영상물이 세상에 나왔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과 아시아문화원은 어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상영회를 갖고 이 영상물을 처음으로 선보였다.

16mm 필름에 담긴 72분짜리 영상에는 1980년 5월 20일부터 6월 1일까지의 시위 상황, 국군통합병원과 적십자 병원에서의 환자 치료 및 신선 수술 모습, 도청 함락 이후 수술 과정 등이 담겨 있다. 특히 5월 20일 금남로에서 시내버스와 장갑차를 각각 앞세우고 시위대와 계엄군이 맞선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과 전준심 씨의 가두방송 모습, 시민 켈기대회 등은 마치 현장에 눈앞에서 보는 듯하다.

또한 5월30일 망월동에서 가족들이 오열하는 가운데 진행된 희생자

시신 안장 장면은 그동안 영상물로는 볼 수 없었던 이날 최초로 공개된 기록이다.

영상은 안타깝게도 소리가 없는 흑백필름이었지만 300여 석의 극장을 꽉 메운 관객들은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숙연하게 자리를 지켰다. 5·18기록관은 지난해 12월 익명의 수집가로부터 제보를 받고 영상의 수집 경로와 상태·내용을 검증한 뒤 이를 사들여 한국영상자료원과 현상 및 디지털 작업을 거쳐 공개했다고 한다.

새로 공개된 영상기록물은 1980년 광주의 상황을 더욱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은 만큼 향후 홍보와 교육에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 영상물은 또한 오는 30일까지 금남로 5·18기록관에서 매일 세 차례 상영된다고 하니, 영상 시민 켈기대회 등은 마치 현장에 서 시민들의 제보가 이어져 5·18 진상 규명에 한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문재인 정부 1년 그리고 광주·전남의 미래

오늘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됐다. 지난 1년간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대체로 우호적이다. 지지율은 80%대로 역대 그 어느 정권 때보다 높다. 특히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지지는 전국 최고 수준인 90%(리서치뷰 여론 조사)까지 치솟았다.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던 한반도 정세를 바꿔 놓고 남북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과 북미정상회담 성사와 같은 가시적인 남북 관계 개선의 결과물을 이끌어 낸 덕분이라 하겠다.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광주·전남 발전의 희망을 보게 됐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역대 보수 정권에서 지속됐던 ‘호남 인사 및 예산 소외’는 사라졌다. 특히 고질적인 ‘호남 인사 출대’가 해소됐는데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에 광주·전남 출신 장관급이 5명, 차관급까지 포함하면 23명의 인사들이 대거 포진됐다.

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재평

가도 고무적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할 데 이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추진, 헬기 사격과 암매장 등 미완에 그쳤던 5·18 진실 규명에도 한 발짝 다가섰다.

하지만 상당수의 광주·전남 지역 공약이 부진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문 대통령의 광주 공약은 광주형 일자리 선도 모델 창출 등 12건, 전남은 무안국 제공항 기반시설 확충 등 11건으로 모두 23건에 달하지만 올해 국비가 반영된 사업은 11건에 불과하다.

그것제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높은 지지율에) 자만하지 말고 초심을 지켜 나가자”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바람대로 성공적인 집권 2년차를 맞이 위해서는 지난 1년의 성과를 냉정하게 분석해 바로잡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일자리 문제와 지역 공약 이행과 같은 미진한 부분은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

의료칼럼

흔들리는 치아



김 옥 수 전남대 치과병원 치주과 교수

“치아가 흔들려요요.” “잇몸이 내려가서 찬물이 이가 시립니다.” “양치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납니다.”

이런 불편함 때문에 치과를 찾았을 때 환자들은 치주염이라는 진단을 받는다. 심한 경우 치아는 썩지 않고 건강한데도 뽑아야 한다는 치과 의사의 말에 큰 상실감을 느끼기도 한다. 흔히 소리 없는 질환이라고 불리는 치주병, 제대로 알고 제대로 치료받지 않으면 치아를 빼야하는 경우로 이어진다.

치주란 치아 주변 조직, 즉 치아를 지탱해주는 치아 주변 조직을 의미하며, 치은(잇몸)과 치조골(잇몸뼈)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치주염이란 치아를 보호하는 치은과 치조골의 염증을 의미하고, 소위 ‘퐁치’라 이른다. 바람에도

치아가 흔들린다는 ‘퐁치’라는 말처럼 치주 질환이 심하면 치아를 돌려싸고 보호해주는 치아 주위 조직이 상실돼 치아가 흔들리게 된다. 치주 질환이 진행되면 잇몸에서 피가 나고 종종 붓고, 잇몸이 내려가서 뿌리가 보이고 치아가 흔들리게 되며 심할 경우 치아를 뽑아야 한다.

치주 질환의 원인으로는 치태와 치석, 그리고 세균을 들 수 있다. 식사 후 올바른 방법으로 구석구석 칫솔질을 하지 않는 경우, 세균막인 치태가 생성돼 치아에 달라붙게 된다. 여기에 음식물 찌꺼기가 붙어 세균에 영양 공급을 하게 된다. 세균막이 생기고 이렇게 생긴 세균막이 집속의 갈습·인 성분과 만나게 되면 돌처럼 굳어져 치석이 되고, 제거하지 않으면 치아에 붙어 점점 커진다. 여기에 당뇨, 스트레스, 손상된 면역 기능, 흡연 등의 요인이 더해지면 치주 질환은 더 악화한다.

현재 한국 성인 19세 이상의 22.7%와 30세 이상의 27.5%의 인구가 이미 치주 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 치주 질환은 흔한 질환이지만 충치가 생겼을 때처럼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지 않거나 증상이 있어도 곧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 치과를 찾지 않는 등 치료 시기를 놓치곤 한다.

이 때문에 치과를 찾을 때는 이미 치주 질환 증상이 심해져 치료가 어려운 경우 마저 있다. 정기 검진을 통한 초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한 이유이다.

치주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선 올바른 칫솔질 방법을 익히고 규칙적인 칫솔질을 통해 치주염의 원인인 치태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구석구석 닦이지 않아 생긴 치태의 경우 올바른 칫솔질을 하면 제거가 가능하다. 칫솔 외에도 치간 칫솔, 치실 및 칩탄 칫솔과 같은 보조적인 도구를 적절히 사용하여면 도움이 된다. 하지만 미처 닦이지 못한 치태가 치석이 돼 단단해 굳어지면 일반적인 칫솔질로는 제거할 수가 없다. 이럴 경우 반드시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통해 제거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9세 이상의 성인들의 경우 일 년에 한 번 스케일링의 보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어도 일 년에 한 번 치과에 방문해 정기적인 검진과 스케일링을 통해 치주 상태를 점검하고 치주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몇 가지 잘못된 상식 때문에 일부 환자들은 스케일링 반기를 꺼린다. 그 중 하나는 스케일링을 하면 치아가 더 시려진다는 경우이다. 오랫동안 스케일링을

하지 않고 많은 치석이 쌓이도록 방치하면 염증 반응에 의해 잇몸뼈가 내려가고, 이로 인해 잇몸이 내려간 양이 많아지며 치주 조직에 둘러싸여 있어야 하는 치아 뿌리 부분이 노출된다. 치석이 치아에 많이 붙어 있을 경우에는 치아가 시리지 않다가 스케일링을 통해 치석이 사라지면 치아를 덮고 있던 치석이 제거되면서 내리간 잇몸 때문에 노출돼 있던 치아 뿌리 부분이 드러나면서 시린 증상이 나타난다. 이는 스케일링 후에 일어나는 정상 반응이며, 보통 일시적이고 점차 완화된다.

스케일링 후 치아 사이가 벌어지고 잇몸이 내려가는 것 같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치태, 치석 및 세균이 원인이 돼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는 잇몸이 붓기 시작하는 것이다. 치아 사이 공간이 염증 때문에 부은 잇몸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경우 염증 원인인 치석을 제거하면 스케일링을 통해 염증을 제거하면 부었던 잇몸이 가라앉으면서 원래 있었던 치아 사이의 공간이 드러나게 된다. 오히려 스케일링과 적절한 잇몸 치료를 통해 치석을 제거해야만 치아 사이 공간이 더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올바른 칫솔질과 정기적인 치과 방문으로 잇몸 건강을 잘 유지하길 바란다.

기 고

보석 같은 광주의 이야기들



김 길 남 블로그 ‘김선생의 광주사랑’ 운영자

무등산은 어머니같이 따뜻한 눈길로 광주 시내를 굽어봅니다. 저 큰 바위 얼굴 같이 든직한 산에 전설이 없을 리 없습니다. 옛날 옛적 무등산에 착한 소녀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새인봉에서 새끼 호랑이 들을 만났습니다. 소녀는 나물바구니를 던져두고 호랑이들을 안고 하루 종일 놀아주었습니다. 어미 호랑이는 보이지 않았습다.

다음날 새벽의 일입니다. “쿵” 마루에 무거운 물건을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아이보다 더 큰 산삼이 두 뿌리나 놓여있는 게 아닙니까? 마당에는 커다란 호랑이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습다. 산삼은 착한 소녀에게 보내는 어미 호랑이의 선물이었습다. 소녀네는 산삼을 팔아서 큰 부자가 되

었습니다.

다음은 광주의 지명 이야기입니다. 광주에 읍성이 있을 때의 일입니다. 지금의 동명동을, 동문밖에 있다고 해서 ‘동밖에’라고 불렀습니다. 마을 이름은 ‘동밖→동뽕→동명(東明)으로 변해갔습니다. 두암동에서 ‘말바우’ 시장이 있습니다. 두암동을 한자로 쓰면 ‘말 두(우), 바위 암(峯)’이 됩니다. 동 이름에 말바우가 숨어 있는 것 보이시나요?

“우리 집 강아지는 복슬 강아지 학교 갔다 돌아오면 멍멍멍.” 한국 사람은 다 아는 동시입니다. 지은이는 광주가 낯은 아동문학가 김태오 시인입니다.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로 끝나는 ‘봄’을 쓰신 분 역시 광주의 시인 이성부입니다.

광주하면 5·18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지요. 그러면 4·19 당시 부패한 정권에 저항해서 시위를 시작한 도시는 마산일까요? 아닙니다. 광주고등학교 학생들이 최초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글을 보고, 글쓴이는 광주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이 있나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찍혀 있었습다. 산삼은 착한 소녀에게 보내는 어미 호랑이의 선물이었습다. 소녀네는 산삼을 팔아서 큰 부자가 되

아보게 된 계기는 우연히 찾아왔습다. 퇴직 후 2년째에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광주를 알자, 광주와 광주 사람들의 이야기를 널리 알리자. 그것이 나의 8할을 만들어준 도시의 은혜를 갚는 길이다.” 그 날 이후로 광주와 광주 사람들에게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광주 이야기를 올리기 위해서 블로그 ‘김선생의 광주사랑’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로 다시 4년이 지났고 블로그에는 광주의 역사, 광주의 유적, 광주 사람들, 광주의 지명, 광주의 전설, 광주의 뿌리 전라도 등 246개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꼭지마다 네 컷 만화도 그려 넣었습니다.

블로그를 채워가면서 광주에 이렇게 보석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많았던가! 갈탄의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았습니다. 블로그 ‘김선생의 광주사랑’은 저의 삶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추억의 7080행사를 처음으로 찾았습니다. 평생학습 축제,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등 내 고장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광주와 광주시장들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내 고장 신문 하나와 내 고장 월간지 두 가지를 구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산구 고리인 마을 사람들다 소문하고 싶어서 러시아어 알

파벳도 익혔습니다. 시내를 거닐 때면 만화로 그림 만한 시민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저의 시선이 좀 더 따뜻해 진 것 같아서 행복합니다.

블로그를 응원해 주신 고은 님들이 많은데 일일이 거명할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주 봉선본촌초등학교에서는 학급 게시판에 블로그를 링크해서서 학생들이 광주를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블로그를 만든 보람을 느낍니다.

5·18 당시에 시민을 향해 발표하라는 신군부의 명령을 거부했던 당시 전남도 경찰청장 안병하 경무관님의 글과 만화를 올린 적이 있는데, 바로 안병하 경무관님의 아들 안호재 님께서 댓글을 남겼습다! 광주에 오시면 맛있는 한정식을 대접하겠습니다.

사실 모든 장소가 아름답고 누군가에게는 애듯한 추억의 무대인 것은 맞습니다. 내 고장, 내 어머니부터 잘 알고 사랑하는 것이 바른 순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뿐입니다. 광주와 광주 사람들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은 저의 블로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블로그 ‘김선생의 광주사랑’을 기억해 주세요.

無 等 鼓

국가 간에 긴장 관계가 지속되어도 막상 전쟁으로 치닫는 경우는 드물 수밖에 없다. 유사한 국력을 가진 국가 간 전쟁은 양국에 이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 때에 따라서는 멸망에 이를 정도로 그 폐해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핵, 화학물질, 세균·바이러스 등을 사용한 치명적인 대량 살상 무기가 속속 개발되면서 전면전은 주변국 그리고 미래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허진모 작가는 ‘모든 지식의 시작 전쟁사, 문명사, 세계사 (2017)’에서 동·서양 문명의 역사를 서술하면서 허두루 무력을 사용했던 강대국들의 몰락을 다뤘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대표하는 아시리아, 중국 대륙을 통일한 진나라가 대표적이다. 가장 확실하고 효율적인 국력 확대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선택한 국가의 리더는 이후 혹독한 대가(代價)를 치러야 했다.

반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전쟁을 막아 낸 리더의 활약은 후대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섯 나라가 다뤘던 중국 춘추전국시대 말기, 소진은 초강대국 진을 견제하기 위해 나머지 국가를 합

종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10년간 전쟁을 막았다. 고려 성종 거란의 1차 침략 당시 서희는 적장을 설득해 전쟁을 막고 강동 6주를 얻어 역사상 가장 유능한 외교관이라는 명성을 얻었다.

1950년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에는 늘 긴장감이 맴돌았다. 체제 존속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였던 양측은 군사력을 향상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북은 1986년 플루토늄을 처음으로 추출했으나 32년 전부터 핵무기를 준비했다는 의미다. 해방 이후 70년 이상 남북은 서로 적대시했다.

지난 4월 27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는 급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랜 기간 쌓인 불신과 그로 인한 불확실성, 주변국의 복잡한 이해관계 등이 위험 요소라고 말한다. 북·중, 한·미, 한·중·일, 북·미 등의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리고, 이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 또한 지대하다. 살얼음판 같은 회담을 준비·조율하거나 회담장에 나서는 정부 인사가이 막중한 부담감 속에도 이 절호의 기회를 살려 한민족에게 새로운 미래를 선사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 진을 견제하기 위해 나머지 국가를 합

전쟁 없는 한반도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7-9500)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사 회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